

금호그룹, 광주 광천동 유·스퀘어 개발·매각 나설까

아시아나항공 매각 무산 기류에 자금 확충 방안 검토

매각시 매입 경쟁 치열할 듯…부지 공공성 등 논란 예상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그룹 재건’의 청사진에 차질이 생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자금 확충을 위해 광주 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광주종합터미널) 등 터미널 부지를 개발·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금호그룹은 지주사인 금호고속이 내년 1월 1300억원에 달하는 차입금 상환을 앞두고 있는 등 당장 자금확충이 시급한 상태다. 안정자산이자 대규모 부동산 자산으로 꼽히는 유·스퀘어 개발·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없지않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계에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유·스퀘어가 광주의 중심지이자 지역 부동산시장에서 ‘노른자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만약 매물로 나오게 될 경우 건설사를 비롯해 ‘세입자’인 광주신세계 등 재계의 매입 경쟁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매각이나 개발이 이뤄진다고 해도 버스터미널 이전과 해당 부지의 공공성 등 각종 논란과 반발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유희 가능성도 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자금확충을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금호고속의 유·스퀘어를 개발하거나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불발’로 자금 확충이 시급해졌고,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을 직접 관리할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지주사인 금호고속은 그룹 계열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담보로 산업은행에서 1300억원을 빌렸다. 차입금 상환 기한이 내년 1월이지만 매각 대금을 받지 못하게 돼 상환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특히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자칫 금호산업 경영권마저 채권단에 넘어갈 수 있어 그룹 입장에서는 자금 확충이 더 시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호고속은 코로나19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어 그룹의 성장 동력으로는 건설사인 금호산업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호산업의 경영권마저 잃으면 그룹의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자금 확충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광주종합터미널) 부지를 개발·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유·스퀘어 전경.

재건이 어려워질 수 있어 현금자산 확보에 그룹의 사활이 걸려있다는 분석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금호그룹이 유·스퀘어를 곧장 매물로 내놓기보다, 건설사인 금호산업이 있다는 점에서 직접 개발에 나선 뒤 매각해 이익을 높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곧장 매물로 나오게 되면 광주신세계가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현재 광주신세계는 금호고속 측에 보증금 5270억원을 내고 2033년까지 임차권을 확보한 상태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앞서 지난 2012년 백화점 건물을 임대해 영업해오던 인천종합

터미널의 소유권이 경쟁사인 롯데쇼핑으로 넘어가는 빼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광주신세계 부지를 경쟁사 등에 빼앗기지 않고, 부족한 영업공간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스퀘어 인수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유·스퀘어가 매물로 나오거나 개발

이 이뤄진다고 해도 유·스퀘어가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는 점에서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터미널의 규모나 구조를 변경하기 어려운 탓에 개발허가를 둘러싸고 각종 논란이 발생할 여지도 다분하다. /박기용 기자 pboxer@

전남 주민 3명 ‘방역방해’ 혐의 경찰 소환

광화문집회 참석 신안목사 등…확진자 2명 추가 누적 163명

신안 목사 등 전남지역 광화문 집회 참석자 3명이 코로나 19 방역 방해 혐의로 경찰 소환을 받는다.

전남도는 10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도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전남지역

주민 3명이 오늘 또는 내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목포시·순천시 방역당국에 의해 형사고발된 3명은 신안지역 목사(확진)와 순천 지역 주민 2명이다.

이들은 방역당국 역학조사에서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적 없다”, “전남에 살지 않는다”며 거짓말을 하면서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거짓말 등으로 방역을 방해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전남에서는 지난 9일 오후 2명의 확진자가 나와 누적 확진자는 163명으로 늘었다.

전남 162번 확진자는 구례 거주 80대 남성이다. 전남 134번(구례 물리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아 확진된 141번 환자의 남편으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고령인 데다 기저질환이 있는 162번 확진자를 조선태병원으로 이송했다. 전남 163번 확진자는 여수에서 발생한 해외 유입 확진 사례(10세 이하 아동)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 농민들 “농업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21대 국회, 농업개혁입법 촉구 선언 기자회견’

“국회에 간헐 있는 의원님들아, 관료들에 놀아나지 말고 국민을 위한 농업개혁 입법 제정에 나서라.”

코로나 19 와중에 겨울철 이상고온·불철 냉해·여름 수해·태풍피해 등 4중고를 겪은 전남 농민들이 21대 국회를 성토했다며 농업 개혁 입법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등 전남 농민들은 10일 오전 무안군 삼합읍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서 ‘21대 국회, 농업개혁 입법 촉구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남 농민들은 회견문에서 ▲농작물 재해 국가 책임제 도입(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삼진강 하류 물난리 환경부, 한 국수자원공사 사과 및 배상 ▲시장 논리만 강요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 ▲농민이 식량 자급 및 농산물 가격 결정에 참여하고 국가가 유통을 책임지는 ‘공공농업’ 도입을 촉구했다.

농민들은 정부를 향해 “농민을 무시하고 농업 예산 확대하는 문재인 정부는 이 제라도 식량 자급률을 50%, 김치 자급률 100% 식량 안전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우리 농산물보다) 더 좋은 식량안보와 코로나 19 백신

이 또 있겠느냐”고 따졌다.

176석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에는 “농민들은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라고 말하는데, 국회 소굴에 갇힌 의원님들은 왜 관료들의 명령이소리란 듣고 있느냐”고 한탄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월 새 없이 찾아드는 재해로 농민은 살길이 막막한데 농협손해보험, 농협 직원, 손해배가인들은 보험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해보험에 들어가는 국고와 지방비 70~80%(전남 지역 연 800억 수준)를 농협손해보험에 주지 말고 농민에 직접 지급하는 국가 책임제로 농업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월 초 삼진강 물난리와 관련해선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를 맹비난하면서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전능 광주·전남연맹은 10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남 농민들이 민주당 전남도당 측에 농업개혁 입법 촉구 서한문을 전달하고, 전국 각지에서 같은 입장 발표가 이어진 뒤 오늘 15일 서울 국회에서 전능 주관으로 농업개혁 입법 촉구 회견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

광주 자가 격리 중 확진 63명

절반이 성립침례교회 관련자…“가족 위해 격리 수칙 준수”

확진자와 접촉으로 자가 격리 중 추가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라 가족 간 감염 예방을 위한 격리 수칙의 준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27명이 자가 격리 중 증상이 발현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자가 격리를 마치고 전 검사에서도 36명이 확진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600명 이상이 자가 격리된 성립침례교회 관련자들이다. 특히 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이 나온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사례가 많다. 그나마 외부인과 접촉은 없지만, 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가족 간 감염 위험도 상당하다.

방역 당국은 수시로 자가 격리자들을 우선 관리하지만, 증상 유무나 이탈 여부 등에 집중돼 집안에서 이뤄지는 격리 실태를 점검까지는 역부족이다. 가족 중에 추가 확진자가 나와 격리 기간이 늘어나는 고충을 막으려면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국은 강조했다. 외출 금지는 물론이고 식사, 세면대, 화장실 등을 별도로 사용해야 한다. 공간이 협소해 부리가 어려우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시설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박항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는 스스로 격리 수칙을 살피고 또 살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의사 국시 “추가 시행하라” vs “검토 불가”

의료계·정부 갈등

의료계와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시행 문제를 놓고 점점 없는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의료계는 추가시험 마련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미 한 차례 더 기회를 준 만큼 추가 시험이나 접수 기한 연장 등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외과대학 교수협의회는 10일 오전 홈페이지에 “의정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장단기로 매우 크며, 향후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학생과 의료계를 자극하는 언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도 의사국시 추가시험은 의정 합의와 무관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간 합의 내용은 이미 합의문으로 공개돼 있고, 의대생들의 추가시험에 대한 내용은 합의 사항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당초 1일 시작 예정이던 의사 국시 실시시험 일정을 8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고, 또 의협의 요청과 시험 신청 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해 접수 기간과 시험 일자도 한 번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 시 : 2020. 9. 15(화) 오후 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산수오거리 → 무등산 방향 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 풍수+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 2020. 9. 8(화) 오후 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 〇〇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땅 매매

화순 도곡 신덕리 계획관리지역 임야 20530㎡
야산·축사허가 및 지붕 위 태양광 설치 가능
선로확보가 14억원(조정가)

남구 대촌 지석동 자연녹지 답1003.5㎡
(대촌산업단지4차선 도로점, 아파트 2천세대 예정) 29억원
남구 대촌 양과동 답1857㎡ 2억8천5백만원
남구 대촌 양촌동 답3875㎡ 3억5천5백만원
광산 수만동 상업용 4층 건물 대지 480㎡, 연 998㎡, 엘리베이터 아파트 밀집지역 부 2억9천만원, 월 1640만원, 용 12억원 매 42억원
나주 남평 교촌리 생산녹지2585㎡ 3억5천5백만원

대한공인중개사사무소 [전제권] 010-6683-3274
광주광역시 남구 대촌 포충로 606-2

분할합병공고

(채권자의의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남일파워텍(이하 “갑”이라 함)과 주식회사 삼호엔지니어링(이하 “을”이라 함)은 시기 2020년 09월 10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재산의 일부인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들 “을”에 합병하고, “갑”과 “을”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제일 익일부터 1개월에 관해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분할합병을 승인할 것으로 간주하며, 2주간의 주주들은 해당 주주권을 제출하시기바라와 이에 공고함

세기 2020년 09월 11일
“갑” 상 호 : 주식회사 남일파워텍
(법인등록번호 : 200111-0571260)
소 제 지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대로 3428, 5층 2층
사내이사 : 양종욱

“을” 상 호 : 주식회사 삼호엔지니어링
(법인등록번호 : 200111-0498604)
소 제 지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62-22, 1층
대표이사 : 김종두

분할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재강전기(이하“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정안전력(이하“을”이라 한다)은 2020년 09월 10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재산의 일부인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을”에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단 삼법 제530조의9 제3항에 의거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 받은 재산 이외의 재물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은 부담하지 아니 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제일 익일로부터 1개월내에 본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본점에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함

2020년 09월 11일
“갑” 주 소 :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동농중길 57
회 사 명 : 주식회사 재강전기
대표이사 : 김 안 식
“을” 주 소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담순로 1421
회 사 명 : 주식회사 정안전력
대표이사 : 임 집 영

분할합병공고

(채권자의의 및 주권제출공고)
(주요정리) “갑”과 “을”의 정주(주주총회) “정”은 시기 2020년 9월 10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과 “을”과 “정”의 각 전기공사업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들 “갑”에 분할합병하고, “갑”과 “을”과 “정”은 존속하고 “을”과 “정”의 각 분할된 전기공사업의 권리 의무들 “갑”이 승계하며 삼법 제530조의9 제3항의 결의 절차를 따라 출자금 이외의 재물에 대하여는 연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하기로 결의 하였으며, 위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제일 익일부터 1개월내에 관해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분할합병을 승인할 것으로 간주하며, 2주간의 주주들은 해당 주주권을 제출하시기바라와 이에 공고함

세기 2020년 9월 11일
“갑” 상 호 : (주)정주(정주) 소 제 지 : 충청남도 당진시 백면로 75-4(계운동) 사내이사 : 김준호
“을” 상 호 : 정주(정주) 소 제 지 :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만수로 781-1 대표이사 : 나정훈
“정” 상 호 : (주)정주(정주) 소 제 지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수환길 26 사내이사 : 이은근
“정” 상 호 : (주)정주(정주) 소 제 지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64 대표이사 : 임주미

분할합병공고

(채권자의의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한경(이하“갑”이라 함)과 주식회사 한경(이하“을”이라 함)은 각 2020년 09월 09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갑”의 그 재산(영업) 일부(전기공사업 부분)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하였으며, 삼법530조의9 제3항에 의거 “갑”의 분할되는 재산(부채) “갑”의 전기공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을”이 승계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이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제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해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고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며 주사가 바라며, 이의가 없으면 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 및 최고함이다.

2020년 9월 11일
--- 아 래 ---
1. 분할 합병 대상 : 전기공사업(영주-0004133)
2. (갑) 상 호 : 주식회사 한 경
대표이사 : 김광민
3. (을) 상 호 : 지양엔비 주식회사
대표이사 : 박원범
주 소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학포로 2713

光州日報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0551